

2006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로 본 결핵

정리 박연숙(본지기자)

통계청이 지난 9월 21일 “2006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및 시·구청(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한 사망신고서의 통계 항목을 집계한 결과로서, 2006년 한 해 동안 질병별 사망순위 등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통계청 발표 자료 중 결핵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6월과 1월에 많은 호흡기결핵 사망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호흡기결핵으로 사망한 인구는 2,541명이다.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질병의 경우 질병군으로 수치를 표기하는 반면 결핵의 경우 단일 질병인 ‘호흡기 결핵’만의 수치여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월별 결핵사망자 비율을 살펴보면 매월 7~8% 대의 사망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1월과 6월에 9.4%, 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1월과 6월에 결핵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핵 외에 호흡기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한 인구는 14,310명이었다.

사망원인 순위별 성별 사망률 추이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보아 2006년에는 사망원인 10위 순위 내 남녀 모두에서 호흡기 결핵이 빠져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호흡기결핵으로 인한 사망은 1996년 인구 10만명당 7.3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및 성비 도표에서는 50대 사망자 중 호흡기결핵으로 사망한 인구가 인구 10만명당 남자가 10.6명, 여자가 1.6명으로 무려 약 6.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을 제외한 호흡기계통의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3명으로, 1996년 23.2명에 비해 6.1명 증가했다. †